



본회 최영훈 본부장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전자업계 입장 및 대응

### 1. 전자산업 대일 교역현황(2004. 5월 현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7.9% 늘어난 32억불을 기록했으며 전체 對日수출에서 전자제품이 36.2%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62.0%), 모니터(127.9%), 칼라 TV(197.6%), 비디오카메라(69.2%) 등은 증가한 반면 컴퓨터(-7.0%), 개별소자반도체(-3.8%), 컴퓨터부품(-22.3%)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7.8% 증가한 58억불을 기록했으며 전체 對日수입에서 전자제품이 30.7% 차지했다.

반도체(24.0%), 경보신호기(82.9%), 개별소자반도체(32.2%), 무선통신기기부품(52.3%), 인쇄회로(29.1%) 등은 증가한 반면 축전지(-0.4%), TV카메라 및 수상기(-13.1%) 등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수입유발 수출형 구조를 보이면서 對일 전자산업 무역적자는 26억불로 무역역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부분 전자부품 분야에서 발생했다.

#### <전자산업 對日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년도	수 출				수 입				수 지	
	전 체	전자산업	증가율	비중	전 체	전자산업	증가율	비중	전 체	전자산업
2000	20,466	7,299	41.6	35.7	31,828	10,717	27.2	33.7	-11,362	-3,418
2001	16,506	5,334	-26.9	32.3	26,633	8,634	-19.4	32.4	-10,128	-3,300
2002	15,143	5,349	0.3	35.3	29,856	9,807	13.6	32.8	-14,713	-4,458
2003	17,276	6,289	17.6	36.4	36,313	12,021	22.6	33.1	-19,040	-5,732
2004.5	8,897	3,217	47.9	36.2	18,831	5,783	27.8	30.7	-9,934	-2,566

\* 비중은 전체 對日수출입에서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 2. 전자산업 대일 경쟁력 비교

전반적으로 일본의 전자산업 경쟁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으며 반도체, 디지털가전, 이동단말기, 소프트웨어

등은 한국이 일본과 동등하거나 부분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이동통신 단말기, MP3P, DVDP, DVR 등 정부통신기기에서 일부 경쟁우위에 있으며, DRAM, TFT LCD, PDP, CRT, CD-ROM 등은 세계시장 1위다.

제조 및 응용기술은 비슷하나, 핵심기술 및 소재, 브랜드 이미지, 유통 및 마케팅 등은 일본에 열위에 있는 상황이며 특히 기술력과 마케팅, 브랜드 면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은 FTA 체결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수준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중 국
원천기술	100	130	140	70
응용기술	100	110	100	80
설계기술	100	110	105	80
제조기술	100	100	100	90
디자인	100	110	105	70
브랜드인지도	100	120	120	70도

\* 자료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관련 업계(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경쟁국 수준)

대일 무역특화지수는 대체로 일부 가전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입특화된 것으로 나타나 대일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품목별 무역특화지수(2002년 기준)를 살펴보면, 냉장고(0.86), 세탁기(0.82), 진공청소기(0.76), 가정용 전열기구(0.56), 비디어태이프 녹화재생기(0.35) 등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확보된 상황이다.

전선(0.13), 일차전지(-0.04) 등은 일본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광섬유(-0.96), 전자관(-0.87), 이차전지(-0.76) 등 전자

# 이달의 초점

부품과 기타 사무계산용 기계(-0.90), 센서·계측기기(-0.86), 의료용기기(-0.70) 등 정밀기기 분야는 대일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였던 CTV(-0.25), 에어컨(-0.39), 음향·영상기기 부품(-0.22) 등도 대일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상황이다.

〈품목별 대일무역특화지수〉

품 목 명	대일무역특화지수		대세계무역특화지수	
	2001년	2002년	2001년	2002년
가저용 전열기기	0.36	0.56	0.74	0.70
조명기구	-0.70	-0.68	-0.33	-0.38
냉장고	0.94	0.86	0.90	0.91
세탁기	0.97	0.82	0.93	0.90
진공청소기	0.74	0.76	0.76	0.77
TV	-0.39	-0.25	0.75	0.76
비디오테이프녹화재생기	0.47	0.35	0.88	0.86
음향, 영상기기 부품	-0.24	-0.22	0.45	0.57
가정용 에어컨	0.32	-0.39	0.94	0.91
전선	0.13	0.13	0.31	0.22
광섬유	-0.99	-0.96	0.33	0.55
전자관	-0.82	-0.87	0.56	0.62
일차전지	0.02	-0.04	-0.08	-0.10
축전지	-0.75	-0.76	-0.20	0.02
기타 사무계산용 기계	-0.84	-0.90	-0.13	-0.36
센서, 계측기기	-0.89	-0.86	-0.76	-0.75
의료용 기기	-0.63	-0.70	-0.38	-0.46
시계	-0.19	-0.29	0.02	-0.08
확성기, 음향중복세트	0.49	0.30	0.32	0.20

\* 자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관련 업계(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경쟁국 수준)

### 3. 파급 영향

-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공동화 가속

전자제품 전체는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철폐(현행 8.0%)로 가격미국내 소비자 가격 기준 12~15% 인하가 예상되며 마진을 취약으로 직접 대일경쟁 업체의 경우 구조조정 및 해외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완제품의 경우 기술력,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열세로 시장상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PDP/LCD/프로젝션 TV, DVD Recorder, 홈씨어터, 시스템에어콘, 캠코더, 세탁기 등은 장치산업이거나 연구개발 및 생산기반으로서의 내수시장이 활성이 시급하다. 또한 디지털방송 등 차세대

성장산업의 초기 투자시장 보호도 필요하다.

부품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차세대 성장산업 핵심 부품 및 기초소재 기술 절대 열위에 있어, 마진구조가 취약하여 관세 철폐시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 4. 업계 입장

- FTA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이나 불가피할 경우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양허(양허기간 확대 및 유예기간 적용)

완제품 업체중 일부 품목을 이외에는 삼성, LG 등 대기업 역시 일본업체에 비해 브랜드 이미지 및 기술경쟁력 열위로 산업피해가 우려된다.

다만,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산설비, 핵심부품 등의 수입가격 인하로 가격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부품 업체는 일부 대기업 계열사(삼성전기, LG이노텍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품 생산 중소기업들의 직접경쟁 제품은 시장철수 또는 중국 등으로의 해외이전 불가피하며 기술 및 브랜드 이미지 열위이나 근소한 가격경쟁력으로 지탱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관세율(8%) 철폐시 경쟁력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 5. 대 책

관세양허 일정 최대한 연장하여 관세철폐 시기연장 및 유예를 통한 가격 및 기술경쟁력 확보 기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조건이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부품소재 기술개발 정책자금 확대와 원자재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혜택, "G7", "차세대 성장동력" 같은 산업피해 구제용 R&D 프로젝트 설립을 통한 원자재, 부품소재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제품 및 포장 디자인, 홍보물 제작 지원과 연

# 이달의 초점

구개발, 신제품 상용화 능력을 갖춘 '스타기업' 양성하여 국산 브랜드 인지도 제고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내 LCD 보세공장 내수판매시 8% 관세부과(일본산 수입 LCD는 무관세)에 따른 국내 보세공장에 대한 관세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넷째, 일본과는 제조업분야에 비교열위가 커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아세안국가(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들과 조속한 FTA 협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자유무역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전자산업 對日 수출입 현황

### ■ 전자산업 對日 수출

(단위 : 천불, %)

구 분	2003년		2004. 5월	
		증가율		증가율
전자산업	6,289,062	17.6	3,217,292	47.9
산업용	1,489,452	1.5	806,441	42.8
가정용	1,098,768	14.7	548,822	49.0
전자부품	3,700,842	26.6	1,862,029	50.0
일반부품	509,775	56.7	206,521	11.1
반도체	3,191,067	22.8	1,655,508	56.8

### ■ 전자산업 對日 수입

(단위 : 천불, %)

구 분	2003년		2004. 5월	
		증가율		증가율
전자산업	12,021,360	22.6	5,782,755	27.8
산업용	3,395,864	24.3	1,783,836	37.3
가정용	1,359,699	28.3	604,483	15.3
전자부품	7,265,796	20.8	3,394,436	25.7
일반부품	2,028,075	8.1	995,496	25.3
반도체	5,237,721	26.5	2,398,940	25.8

### ■ 전주요 품목별 對日 수출

(단위 : 천불, %)

번호	품 목 명	2003년	증가율	2004. 5월	증가율
1	집적회로반도체	2,978,011	23.9	1,567,654	62.0
2	모니터	333,789	2.5	246,777	127.9
3	칼라TV	352,230	430.0	220,737	197.6
4	비디오카메라	127,701	-9.8	94,579	69.2
5	컴퓨터	161,764	-19.1	67,247	-7.0
6	개별소자반도체	161,036	-0.4	66,100	-3.8
7	컴퓨터부품	171,431	-57.6	64,955	-22.3
8	인쇄회로	93,912	46.8	62,020	58.9
9	보조기억장치	118,053	15.3	61,621	32.1
10	무선교환기및중계기	132,711	196.8	59,170	20.1
11	무선통신기기부품	46,976	99.6	52,988	537.6
12	유선전송장치	78,864	27.9	46,013	58.8
13	경보신호기	87,870	74.8	43,050	-4.5
14	폐건전지	87,267	401.5	42,898	200.2
15	영상기록매체	93,402	-8.8	32,411	-6.3
16	유선통신기기부품	32,648	871.7	31,465	161.1
17	기타전자응용기기	66,250	17.4	27,134	35.0
18	평판디스플레이	148,145	137.3	24,861	-59.4
19	VCR	84,898	36.6	23,632	-16.8
20	전구	43,995	87.1	21,325	18.5

### ■ 전주요 품목별 對日 수입

(단위 : 천불, %)

번호	품 목 명	2003년	증가율	2004. 5월	증가율
1	집적회로반도체	3,801,212	29.1	1,695,621	24.0
2	경보신호기	748,541	153.5	442,720	82.9
3	개별소자반도체	904,584	18.5	434,219	32.2
4	무선통신기기부품	669,998	43.8	371,005	52.3
5	인쇄회로	399,481	21.3	200,879	29.1
6	계측기	304,271	17.0	191,933	75.1
7	실리콘웨이퍼	332,780	50.0	179,179	36.3
8	축전기	352,562	1.6	172,621	26.6
9	비디오카메라	309,664	22.6	162,514	30.2
10	연결부품	241,006	20.0	122,015	38.7
11	음향기기부품	307,463	25.7	120,117	4.8
12	칼라TV	241,856	98.0	109,664	31.3
13	전구	230,529	33.6	107,976	31.6
14	축전지	257,079	-6.4	107,670	-0.4
15	컴퓨터부품	211,920	16.2	104,804	53.3
16	평판디스플레이	116,433	35.9	82,128	77.2
17	자동제어기	114,376	21.2	70,655	56.0
18	센서	121,304	76.7	67,518	92.9
19	집적회로반도체부품	130,753	3.0	62,216	23.9
20	TV카메라및수상기	163,525	6.6	61,952	-13.1